

육법공양 “지극정성 부처님 찬탄”

육법공양 계승



향공양
 마음을 바로하고 입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계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향회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가 무엇이든 사라지게 하소서.

등공양
 밝은 등불 증축이 밝히어 대천세계 고투고루 부추오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차공양
 감로다를 다려서 공양하니 사바에 저들은 죄업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명든 육신을 맑음이 씻겨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되게 하리다

꽃공양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 향기처럼 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과공양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사라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쌀공양
 석가세존 복밭을 기우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마지 울리고 그 공덕 법계에 회향하리다.

※이 계승은 육법공양에 올리는 법계의 계승을 번역한 것으로 각 공양의 부분을 간추린 것임.

향·차·꽃·과일·등·쌀 '공양' 92년 '육법공양회' 신라전통 재현 불자로서의 바른 삶 보살행 서원

12일 부산 KBS홀, 향기로운 잔치가 열렸다. 만개의 등을 밝히고 만송이의 꽃을 피워 시방세계를 장엄하고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려 부처님을 찬탄하는 잔치였다. 경주 동해사(주지 도주)가 마련한 이날 '만동만화 육법공양' 잔치는 만중생의 정성을 담아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지혜의 삶을 발원하는 자리였다. 도주스님이 여섯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1백80송이의 연꽃작약 목단 지화(紙花)가 장엄된 화정(花亭)에 탄생불을 모시고 장중한 육법공양(법배)의 선을 속에 향, 차, 꽃, 과일, 등, 떡 등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며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서원하는 잔치는 절정에 이르렀다.

14일 서부전선 김포 해병장총부대 얘기봉 OP. 북녘동포에게 부처님 오신뜻을 알리기 위해 등탑에 연등을 밝히는 절동식에서도 육법공양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육법공양회(지도법사 정승연)가 봉행한 육법공양 의식은 조계종 지도자 스님과 해병대 지휘관, 장병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고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부처님께 깨끗한 공양물을 바치며 인간세상의 탐욕과 분쟁을 소멸시키는 보살행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서원했다.

부처님의 위의를 찬탄하고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서원하는 전통 공양의식인 육법공양이 불교계 행사에 필수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일 행사로 확대 기획된 만동만화 육법공양 행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육법공양이란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온 불교의 6가지 공양을 뜻한다. 6가지 공양물은 향, 등, 차, 꽃, 과일, 쌀이 보편적으로 쓰인다. 이중 차와 꽃 공양의 전통은 다도와 불교 꽃꽂이로 발전되어 별도의 문화 예술적 장르로 발전되기도 했다.

육법공양의식은 92년 10월 육법공양회에 의해 처음 재연됐다. 육법공양회는 강남 구룡사에서 1천80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전통사경법회와 육법공양의식, 도량갈계 의식을 재현, 신라시대의 불교 전통의식을 되살렸다. 공양회는 호암박물관에 소장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의 말미에서 '연가조사가 국대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대사경법회를 열었으며 이 법회에서 정의동자가 뜻을 뿌려 도량을 청정히 하고 대중들이 향, 등, 차, 꽃, 과일, 쌀의 여섯 공양물을 부처님전에 올렸다'는 기록을 토대로 육법공양의식 등을 재현한것. 이후 각사찰이 육법공양회를 구성해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제일, 열반제일 등 5대명제일에 육법공양 의식을 행하기 시작 현재는 20여 사찰에 육법공양회가 구성돼 있다. 육법공양을 확대한 만동만화 육법공양 의식은 96년 연화정사 연화플라워회(회장 정명)가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의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육법공양 의식의 절정인 각 공양물을 올리는 순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자의



○육법공양 단체가 20여 사찰에 구성된 각종 의식을 장엄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얘기봉 OP 점동식에서 육법공양회기 육법공양의식을 봉행하는 모습.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장면이다.

발원을 담은 계승이 법배로 불리지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육법공양 의식에서는 이 계승을 우리말로 번역해 국악 가락에 얹어 부름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12일 만동만화육법공양 법회를 마련한 도주스님은 "참다운 공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정성과 몸이 하나된 자리에서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나와 부처님을 하나로 만드는 공덕으로 승화될 것입니다"고 공양의 의미를 전했다.

글=임연태·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공양의 의미 "가르침 받아 지니겠습니다" 감사 표현

부처님을 칭하는 여러 용어 중에 응공(應供)이란 말이 있다. 이는 응수공양(應受供養)의 줄임말로 부처님은 마땅히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만한 분이란 의미다. 공양은 뜻 어른에게 음식이나 의복등을 바침으로 존경심을 표하고 경건히 가르침을 받아 지닌다는 뜻이다.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공양함으로써 법을 전해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공양은 2종공양, 4사공양, 10종공양 등으로 나뉜다. 2종공양이란 재(財)공양과 법(法)공양이다. 사(事)공양이라고도 하는 재공양은 물질(향 꽃 등 음식물등)로 공양하는 것이고 이(禮)공양으로 불리는 법공양이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4사공양은 네가지의 공양물 즉 음식 의복 의약 침구를 뜻한다. 10종공양은 두가지로 풀이된다.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꽃, 향, 영락, 말향, 당반 등 열가지의 공양물로 설명하고 있고 (지지경(地持經))에서는 (신(身)공양, 재물공양 등 열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공양물에 반드시 포함되는 꽃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성담)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선해선인으로 보살행을 닦고 있을때 보광여래가 온다는 말을 듣고 여래꽃을 공양하기 위해 꽃을 구하러 다녔으나 이미 영이 없게 공양하기 위해 모든 꽃을 사들여서 구할 수 없었다. 선해선인은 구리라는 선녀에게 일곱 송이의 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리를 찾아 갔다. 구리는 꽃을 팔 수 없다며 "나와 결혼을 해 준다면 다섯 송이의 꽃을 팔겠다"고 했다. 선해선인은 구리선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꽃을 구해 여래께 공양했다.

이 이야기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한 최초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불교식 결혼식에서 신랑이 다섯송이 신부가 두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이 전성담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12일 동해사가 주최한 만동만화 육법공양법회의 관육의식.



○5일 설악산 신축사에서 열린 '국난극복참회대법회'의 육법공양의식. 공양물 입성순서.

IMF터널 봉축경기 작년 절반 수준 실용적 봉축상품 그나마 '효자'

경제난으로 봉축용품 시장 경기가 작년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봉축 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삼전불사(대표 김상길)는 풀이 흘러 넘치고 꽃장엄이 번거로웠던 기존 관육대의 문제점을 보완한 관육대를 개발했다. 삼전불사가 새롭게 개발한 관육대는 풀을기를 내장하고 있다. 코끼리 상 앞에 두 마리 용이 물을 뽑는 용천샘이 있어 풀을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가격은 36만원, 이와 함께 부처님 탄신 축하용 촉대인 만(冠)자 장엄촉대도 내놓았다. 732-6095

96년부터 캐릭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봉축위원회에서는 올해 캐릭터 상품으로 사파리, 티셔츠, 조개, 모자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학생용 공책과 엽서, 공중전화카드, 손수건,

컵, 손목시계 등 편사용품도 마련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캐릭터 용품전문점 견지불교사(739-3032)의 경우 부처님 오신날 뿐만 아니라 여름수련회 및 외국인들 기념한 파도타는 동자, 아자수 아래에서 기다리는 아기부처님 등을 담은 티셔츠와 휴대용연꽃등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관음손(대표 강미애)에서는 어린이 용품 위주로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을 끈다. 어린이용 시계 벽걸이, 공책, 가방 등을 주로 기획 제작했다. 720-1147

동구마켓팅(대표 정재성)에서는 랜던트형 108염주를 개발했다. 108염주는 끈고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호안석, 백수정, 옥등 3가지로 제작됐다. 또 고려부부분은 연꽃으로 옴마니반매를 조각을 달고 있으며 뒷면에는 주문자의 생년월일, 생시, 이름

을 조각해준다. 수익금의 5%는 불우이웃돕기에 쓸 예정이다. 701-0038

신상품의 다양한 출시에 비해 봉축용품 판매 상황은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완성연등의 경우 거의 주문이 없어 재고가 쌓이는 형편이며 소도품인 연일은 지난해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 대부분의 사찰들이 연등을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봉축리본등 행사용품과 단체주문이 많았던 티셔츠 등에 대한 주문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봉축상품을 취급하는 매장 관계자들은 "올 봉축신상품은 경기침체로 인해 기대만큼 다양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성과 디자인의 고급화 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전불사가 개발한 관육대.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락성토의 방편을 서슴치어.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튼튼립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모험과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득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파신정만 하시면 정자에 따른 불공없이 무대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아미타전 관람요금 (19명이상 단체에 한함)

상층권	상대좌	일반관객	일반단체	어린이	유아	유아
아미타1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2	15,000	13,000	10,000	7,000	5,000	
아미타3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4	22,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5	22,000	20,000	18,000	14,000	11,000	

● 공동주관: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중앙미술관
 ● 문의·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2-732-1522, 737-8881 팩스: 737-6697, 737-0690